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종교적 성격과 구조

김덕목 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

minsokmu@hanmail.net

국문초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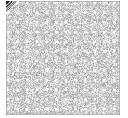
정월 세시의례는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여 그해의 안녕을 비는 종교적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12월 중순이 되면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한 가도마츠(門松)와 시메나와가자리(しめなわ飾り), 정초에 먹을 오세치요리를 준비한다. 새해가 열리면 신사에 가서 하쓰모데(初詣)를 한다. 정월 보름에는 돈도야키를 하여 정월에 사용한 장식물과 지난해에 사용한 부적이나 액막이 물건을 전부 태워 보낸다. 한국에서도 설이 다가오면 차례준비를 하고 선달그림에는 집안을 깨끗이 하고 가까이 사는 어른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묵은세배를 드린다. 새해 첫날 차례를 지내며 정초에서 보름까지 지신밧기, 달집태우기 등 많은 세시의례가 있다. 중국에서는 제야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단원반(團圓飯)이 중요하다. 환하게 불을 밝히며 밤을 새며(守歲), 문밖에서는 폭죽소리가 요란하다. 문에는 춘련을 붙이며 새해에는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폭죽을 터뜨리며 요란하게 보내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보름에 달집태우기와 돈도야키를 시끌벅적하게 한다.

사계절의 순환에 따른 생업과 제의력에 기초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시의례에서 정월은 비중이 높다. 정월은 1년의 시작으로 그해의 안녕과 풍요를 염원하는 갖가지 의례가 행해진다. 또한 정월 세시의례에는 민간신앙적 세계관이 잘 내포되어 있어 한·중·일 세시의례에 내포된 종교적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본 연구는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현황과 정월 속에서도 어떤 변곡점에 맞물려 세시의례가 구조화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신, 예축과 풍요의 기원,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의 측면에서 종교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의 정월 세시의례에는 샤머니즘과 농경신앙, 조상숭배, 신도, 도교, 유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 보이며 유무(有無)나 정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정월, 세시의례, 한·중·일, 종교적 성격과 구조, 일반성과 특수성

투고일자 2023. 7. 7. | 심사일자 2023. 10. 19. | 게재확정일자 2023. 10. 24.





I. 머리말

한·중·일의 세시의례는 각국의 생태환경과 생활사에 맞물려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3국의 세시의례를 분석한다면 일반성과 특수성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국 문화의 성격과 종교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실증적인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에서 종교적 성격과 구조를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며 그것에서 드러나는 3국의 특수성과 일반성도 살펴본다. 본고에서 정월 세시의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정월이 한해를 넘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관문에 위치하여 ‘열두 달의 서두’라는 시간성, 그러한 시점이 반영된 보다 나은 생활과 생업이 창출되는 물리적 공간을 염원하는 종교성이 잘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시의례의 절반은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1년의 세시의례에서 정월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크다.¹

세시의례를 일본에서는 ‘연중행사, 중국에서는 ‘절일(節日)의 습속’, ‘절일풍속(節日風俗)’, ‘절일문화(節日文化)’, ‘세시풍속’ 등으로 표현되며 특히, 중국에서는 절일(節日) 즉, 명절의 맥락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시풍속’이라고 한다. 임동권은 세시풍속을 “일상생활에 있어 계절에 맞추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민속”으로 정의하였다.² 미쓰하시 타케시(三橋 健)는 “연중행사가 생겨난 배경에는 생명의 순환을 1년 단위로 생각하는 일본 고래의 사유방식이 있다”고 보았다.³ 본 연구에서는 종교·의례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고자 하여 ‘세시의례’라고 칭한다.⁴

세시의례에는 민속이 종합적으로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일 민속학자들은 일찍부터 주목해왔다. 현대 중국 세시의례에 대해서는 교계당(喬繼堂)의 『中國歲時風俗』(1991)이나 중국 내 한족을 비롯해 전체 56개 민족의 절일을 소개한 고점상(高占祥)의 『中國民族節日大全』(高占祥, 1993), 전건화(田建華)·향량희(向良喜)의 『中華民俗全知道』(2012), 괴대신(蒯大申)·기홍(祁紅)의 『중국민속학』(박현규 역, 1999)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구환흥(丘桓興)의 『중국풍속기행』(남종진 역, 2002)에서는 길림성 한족마을에서 관찰한 농가의 설날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현대 중국 촌락에서 행해지는 세시의례를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된다. 중국 세시의례의 고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중국대세시기(전2권)』(2006)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책은 세시의례에 대한 최초의 문헌인 『형초세시기』를 비롯해 『초학기』, 『동경몽화록』, 『세화기려보』, 『희조략사』, 『제경경물략』, 『제경세시기승』 등을 번역한 총서이다. 도립번(陶立璠)은 『중국민속학의 이해』(김종직 역, 1997)에서 종교적인 명절과 민속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도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의 『祭日考』(1946)를 비롯하여 세시의례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다. 특히, 연중행사를 도작문화론과 전작(畑作)문화론에서 보거나 정월에 모셔지는 신의 성격과 오본(盆)의 의미를 묻는 연구경향이 있다. 세시의례를 소개한 단행본은 신타니 타카노리(新谷尙紀)가 감수한 『일본인이라면 알아두었으면 하는 생활의 세시기(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暮らしの歳時記)』⁵ 등 다수가 있으며 『일본인이라면 알아두었으면 하는 생활의 세시기』

1 본 연구에서 정월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점에 주목한 것이며 또한 12달 전체를 다루기에는 광범위하여 한 편의 논문에서 무리가 있어 범위를 정월로 한정하였다.

2 임동권, 1993, 『韓國歲時風俗研究』, 집문당, p.9.

3 三橋 健, 2021, 『神道の本』, 西東社, p.234.

4 세시풍속은 의례, 놀이, 음식, 속신 등을 망라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종교 및 의례적 측면에 집중하여 세시풍속의 의례적 측면을 종교적으로 검토하는 데 연구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명칭도 세시의례로 칭하였다.

5 新谷尙紀, 2007, 『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暮らしの歳時記』, 宝島社.

에서는 일본 전역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세시의례에 대해 역사적 연원을 밝혀가면서 쉽게 정리하였다. 도미야마 아키라(富山 昭)의 『静岡縣 民俗歲時記』⁶는 시즈오카현의 세시의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특정지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된다. 오가와 나오유키(小川直之)는 「연중행사 연구의 방향(年中行事研究の方向)」⁷에서 연중행사의 구성과 구조, 문화접촉과 융합, 시간론의 전개, 생활력의 확인을 제안했다. 이사카 야스지(井阪康二)는 「일본민속학의 연구동향Ⅱ, 시간의 민속(日本民俗學の研究動向Ⅱ, 時間の民俗)」⁸에서 연중행사를 시간의 민속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일본학계의 많은 논저 중에서 본 연구주제와 관련이 깊은 것은 오바야시 타로(大林太良)의 『쇼가쓰가 온길(正月の来た道)』⁹이다. 그는 정월 초하루에 일찍 우물을 뜨는 와카미즈(若水) 행사는 생명수의 관념에 기초한 중국 고대문화의 신년(新年)의 영향 아래 장강유역 및 그 남쪽의 도작문화에 있어서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정월과 8월 15일에 요리하는 토란은 중국에서는 화전민의 문화에서 재배한 긴 역사를 가진 것인데 도작농경지역에 수용되고 그곳에서 연중행사의 체계 속에 조합되어 처음으로 정월과 중추(中秋)의 제물로 올리고 먹는 습속이 확립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석전에 대해서도 중국남부에서 현재 상당수 행해지며 도작농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동아시아 도작농경문화 지역의 연중행사의 유사성은 장기간 교류의 결과이며 문화의 중심적 영역은 중국 강남지역으로 보았다. 후지와라 오사무(藤原修)는 「도시가미의 성격에 관해서(トシガミの性格について)」(1994)에서 정월 행사

는 연두(年頭)행사로써 현재 모셔지는 도시가미의 농경신적 성격은 원 정월의 속에서 모셔진 원 도시가미관(年神觀)을 반영한 것이고 원 도시가미는 벼의 신에서 농신(田の神)으로 변화했다고 보았다. 정월 원단(元旦)을 신년으로 하는 정월관의 성립은 새로운 도시가미관을 성립시켰고 새로운 도시가미는 조령적, 농경신적, 복신(福神)적 측면을 가지게 되고 미래의 도시가미관에도 영향을 주어 복잡한 도시가미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¹⁰

한국에서는 조선후기 실학자들도 관심을 가졌다. 유득공의 『京都雜誌』(1779), 김매순의 『洌陽歲時記』(1819), 홍석모의 『東國歲時記』(1849)는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다. 『京都雜誌』와 『洌陽歲時記』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東國歲時記』는 당시 왕궁이나 서울 지역 세시의례에 대한 서술과 각지의 사례를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荊楚歲時記』와 같은 중국 옛 문헌들의 고사를 곁들여 세시의례 연구에 소중한 자료가 된다. 이후 1911년에 최남선이 『東國歲時記』, 『洌陽歲時記』, 『京都雜誌』를 조선광문회에서 인간(印刊)하였으며, 『朝鮮常識問答』(1946)에서는 세시의례의 의미와 어원을 살펴보았다. 이후 일본인 학자나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 세시의례에 대한 다수의 글이 소개되었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민속지적 연구였으며 세시의례에 대한 종교적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발간도서가 주목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의 세시풍속(전2권)』(1997)은 한국민속종합조사 사업 이후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이며,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1년 이후에 전국적인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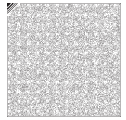
6 富山 昭, 1992, 『静岡縣 民俗歲時記』, 静岡新聞社.

7 小川直之, 1992, 「年中行事研究の方向」, 『日本民俗學』190, 日本民俗學會, pp.88~96.

8 井阪康二, 1998, 「日本民俗學の研究動向Ⅱ, 時間の民俗」, 『日本民俗學』214, 日本民俗學會, pp.33~42.

9 大林太良, 1992, 『正月の来た道』, 小學館.

10 井阪康二, 1998, 「日本民俗學の研究動向Ⅱ, 時間の民俗」, 『日本民俗學』214, pp.31~32에서 재인용.



시의례를 조사하여 『경기도 세시풍속』(2001)을 비롯해 도별 책자를 발간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한국고문서학회에 의뢰하여 『한국 고·중세 세시풍속 자료집대성』(2002)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후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삼국·고려시대편(2003), 신문·잡지편(2003), 조선전기문집편(2004)으로 전 3권의 총서로 나왔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의욕적으로 실시한 세시기 번역사업으로 『조선대 세시기 I』(2003)도 발간하게 되는데 「세시기」(추재집), 「세시기속」(『면암집』), 「한양세시기」, 「세시잡영」, 「농가 십이월속시」, 「명절풍속」(『해동죽지』)에 이르는 조선후기 6편의 세시기를 모아 번역하였다.¹¹

한·중·일 3국의 선행연구는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연구경향을 중심으로 약술하였다. 전거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세시의례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거나 성격이나 의례구조, 종교적 측면에 대해 주목한 연구도 일부 있으며 일본학자 다케다 아키라(竹田 昶)는 청명과 한식을 비교한 바 있으나¹² 정월 세시의 종교적 성격과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임재해는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하)』(1998)에서 「동아시아 세 나라의 세시풍속 비교」라는 글을 수록하였는데 3국의 역법과 변화된 차이, 보름에 대한 시간인식의 차이, 양수가 겹치는 중일(重日) 세시의 인식과 차이, 설의 민속과 시간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글에서 임재해는 각국의 세시의례에서 두드러지는 종교문화의 전통으로 한국

은 유교문화와 무속, 중국은 도교문화와 유교문화, 일본은 불교문화와 신도문화라고 보았다. 이러한 종교문화적 특징은 본고에서 필자가 제시한 견해와 동일하다. 임재해의 연구는 한·중·일 세시의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참조할 수 있지만 단편적인 사례를 가지고 단정한 부분이나 현장관찰 없이 타인의 문헌 내용 일부를 보고 속단한 점은 추후 실증적인 연구와 검증이 요구된다.¹³

임재해와 같이 정월 세시의례 중 일부인 설날을 검토하거나 단편적인 언급은 몇몇 글에서 보이나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를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일반성과 특수성, 상관성 등에 대한 고찰은 찾기 힘들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라는 시야에서 한·중·일 세시의례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민속지적 연구와 달리 종교적 성격과 구조를 중심으로 정월 세시의례가 가지는 기능과 의미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 있어 범위나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수많은 소수민족을 전부 다룰 수 없기에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한족(漢族)의 세시의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세시의례가 존재하며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와 종교적 측면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월 세시의례의 일반적인 전형성과 논의전개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종교적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11 김덕목, 2011,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한국민속기록보존소, pp.185~188.

12 竹田 昶, 2008. 10. 「日韓比較民俗學の試み—清明と寒食をめぐって」, 『専修大學社會科學研究所月報』 544.

13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혈연 중심의 조상신에 대한 제의는 없고 신사와 같은 지역신이나 또는 세덕신과 같은 시간신에 대한 제의가 한층 비중이 높다.” “따라서 정월 초하루의 의례를 통해 볼 때 일본은 혈연 중심의 가문의식보다 지역이나 국가 중심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설 민속은 중국이나 한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민속을 고스란히 전승한다고 해도 좋겠다”라는 부분을 예시로 들 수 있다(최인학 외, 1998,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하)』, 민속원, pp.70~71). 필자는 수년 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일본의 촌락에서 정월 의례를 지켜본 바 있다(김덕목, 2021, 『일본의 가정에서 모시는 신 연구 - 시즈오카현 우쓰노야 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재』 55(4), 국립문화재연구원). 일본인들은 평소 불초단(佛壇)에 조상을 모셔놓고 새해가 되면 음식을 올리고 인사를 드리며 부초단에 계신 조상님과 관련된 방계 후손들도 정초에 방문을 하여 인사를 드린다. 이런 보편적인 세시의례가 있는데 혈연 중심의 조상신에 대한 제의가 없으며 따라서 가문의식보다 지역이나 국가 중심의 공동체의식이 더 높다는 결론은 속단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날 중국에서 전파된 ‘오토소’ 풍습과 같은 것을 비추어 볼 때 일본의 설 민속은 중국이나 한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자신들의 고유 민속을 고스란히 전승한다고 해도 좋겠다는 견해도 재고할 점이다.

세시의례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승된 것도 있지만 역사의 파고와 생활사에 따라 역동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세시의례의 시기도 고민된다. 본고에서는 20세기에서 21세기 현대 민속학자들에 의해 조사되거나 기록된 세시의례에 중점을 둔다.¹⁴ 즉, 민속학자들이 노년층의 기억 수집을 통해 조사하거나 현대의 시점에서 세시의례로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하였음을 밝혀둔다.¹⁵

II.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

1.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

본 연구에서는 중국 최초의 세시기인 『형초세시기』¹⁶와 청나라 말기에 북경지역 세시의례를 기록한 『연경세시기』 등 옛 자료들도 참조하였으나 아래 도표에서는 현대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도립번(陶立璠)의 『중국민속학의 이해』(김종직 역, 1997), 고점상(高占祥)의 『中國民族節日大全』(高占

祥, 1993), 전건화(田建華)·향량희(向良喜)의 『中華民俗全知道』(2012), 괴대신(蒯大申)·기홍(祁紅)의 『중국민속학』(박현규 역, 1999), 구환흥(丘桓興)의 『중국풍속기행』¹⁷ 등에서 중국 정월 세시의례의 기본적인 틀과 구조 및 종교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도표로 요약하였다.

2. 일본의 정월 세시의례

여기에서는 신타니 타카노리(新谷尙紀)가 감수한 『일본인이란면 알아두었으면 하는 생활의 세시기(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暮らしの歳時記)』(2007), 도미야마 아키라(富山 昭)의 『静岡縣 民俗歳時記』(1992), 이이쿠라 하루타케, 허인순 외 역, 『일본의 연중행사와 관습 120가지 이야기』(2010), 竹折直吉, 『日本の民俗 静岡』(1972) 등을 참조하여 현대 일본의 정월 세시의례의 구조와 종교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추려서 요약하였다.

14 물론 3국의 정월 세시의례의 구조와 종교성이라는 척도에 타당한 대상을 다루고 비교함에 있어 애로사항도 있다.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의 경우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공산화 이후 종교적 측면들이 소실되는 경향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현대 실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 고대부터 내려오는 자료들도 함께 고려하였음을 밝혀둔다. 여기에서도 각국 세시의례의 전형성이나 종교적 측면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에서는 시대를 넘어 고대의 자료까지 참조를 하였음을 밝혀둔다.

15 한국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이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세시의례가 1990~2000년대의 시점이므로 당시 70~80대 노년층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을 고려하면 1910년 이후에 출생한 분들의 '기억수집'이라는 시간성을 가진다. 일본이나 중국 역시 그 나라 학자들에 의해 20세기~21세기를 통해 수집되거나 집필된 내용을 필자가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6 정월 초하루 아침: 어른께 경하를 올리고 돌아가신 분에게 애도, 관부에서는 조정에 하례하고 사가에서는 제사, 마당에 폭죽을 터뜨려 산조(山臊)와 악귀를 쫓음, 문에 닭의 형상을 그려 붙이고 5가지 색깔로 아로새기기도 하며 자고새를 걸어두기도 함, 도판(桃板)을 만들어 문에 붙이고 신도와 울루를 문 양쪽에 붙임, 호랑이그림을 붙이기도 함, 의관을 단정히 하고 하례하고 초백주(椒柏酒)를 바침, 도탕(桃湯)을 마시며 도소주(屠蘇酒)와 교아탕(膠牙餠)을 바침, 오신반(五辛盤)을 먹고 부우산(數于散)을 바치며 각귀환(卻鬼丸)을 복용하고 각각 계란 하나씩을 바침, 삼씨와 콩을 볶아 설탕에 버무림, 돈궤미를 막대기 끝에 매달아 빙빙 돌린 뒤 두엄 위에 던지며 여원(如願)을 부르며 소원을 빕. 정월 7일: 인일(人日)이라 하여 7종류의 채소로 국을 끓임, 채색 비단을 오리거나 금박을 새겨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병풍에 붙이거나 머리에 꽂음. 입춘: 비단으로 오리 제비를 만들어 머리에 장식하고 '宜春'이라고 써서 붙임, 시구놀이(줄다리기), 타구(打球, 공차기), 추천(鞦韆, 그네)을 함. 15일: 공죽에 기름을 띄워 문에 제사, 저녁에 자고(紫姑, 축신)를 맞이하여 누에치는 일과 여러 일을 점침. 미일(末日): 밤에 갈대로 만든 햇불로 우물과 변소를 환하게 밝히면 모든 귀신이 도망. 그믐: 초하루부터 그믐까지 술과 음식을 먹고 배를 띄우거나 물가에 모여 연회, 궁귀 전승(죽과 해진 옷을 버려 길가에서 제사).

17 치우환성이 중국 길림성 한족마을에서 조사한 현대 춘절의 세시의례. 12월: 두포(豆包, 동북지방에서 춘절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만들기, 납팔죽(臘八粥, 8일) 만들기, 돼지잡기(8일이 지나면 설에 쓸 돼지를 잡아 이웃사람을 초대해 白肉血腸을 만들어 대접), 조왕제(23일), 집안청소(24일), 두부 만들기(25일), 술 빚기(26일), 닭잡기(27일), 국수 뽑기(28일), 제례음식 준비(29일), 그믐~춘절: 춘련 붙이기, 등 밝히기, 가묘에 제수 올림, 성묘, 망공(望空), 연이반 먹기, 압세전(壓歲錢), 수세(守歲), 폭죽, 마당에 제상을 펴고 가묘 안에 있던 제수를 옮겨놓음, 제상 앞에 기도를 올린 후 대문 밖으로 나가 조왕신, 재물신, 기쁨의 신을 맞이함. 하늘을 보고 풍흉을 점침, 경세교자(更歲餃子) 먹기, 가묘에 걸려있는 가보(家譜)에 세배, 어른께 세배, 덕담, 세뱃돈, 마을어른께 세배(除夕~초하루) 고교(高蹺) 놀이때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명절놀이(丘桓興, 남종진 역, 2002, 『중국풍속기행』, 프리미엄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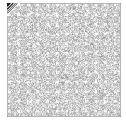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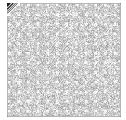


표 1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

	기간	유형	목적과 내용	비고
납월		납팔일 (臘八日)	석가모니가 성불한 날로 새해에도 오곡과 가족이 흥성하기를 기원하며 납팔죽(臘八粥) 먹음(8일)	
		조왕제	조왕이 옥황상제에게 보고를 잘 해서 신년에 복을 얻게 해달라고 주방의 조왕 신위 앞에 설탕류, 떡 등 푸짐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 지냄(23~24일)	신년의 복 기원
		청소	새해를 맞이하여 집안을 깨끗하게 정화(24일)	청소
		연화(年貨) 준비	자가소비 및 선물을 위해 물품 준비(24일 무렵)	물품 준비
		춘련 붙이기	악한 귀신을 쫓기 위해 복숭아 나무판자에 신도와 울루의 모습이나 이름을 적어 대문 양쪽에 두는 도부(桃符)에서 유래. 도부에 경사스런 글귀를 새겨 문에 붙임(30일 밤)	벽사 (辟邪)
		문신 화상 붙이기	벽사와 축귀를 위해 해를 넘길 때 도교와 민간신앙에서 문호(門戶)를 지키는 신의 화상을 문 위에 붙임	벽사
		연아반 먹기	제야(除夜)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만찬	가족 만찬
		수세	불을 환히 밝히고 사악한 병과 역기를 쫓아내고 신년이 길하기를 비는 뜻에서 잠을 자지 않음	벽사
춘절 (초하루)		재신맞이	재문(財門)이 열리고 내방자가 자신의 화상을 잡고 길하고 이로운 말을 함. 주인은 재신상(財神像) 받고 그들에게 돈을 줌(1일 0시)	재신
		폭죽	새해가 되면 산에서 내려오기를 좋아하는 '산소'라는 괴물이 대나무 타는 소리와 불빛을 무서워해 닭이 울면 새벽에 대나무를 놓고 불을 지피는 것에서 유래(1일 새벽)	괴물 퇴치
		설빔	새옷을 입음	옷차림
		세뱃돈과 압세과자	아이들에게 세뱃돈이나 압세과자 줌	선물
		연하장	신년인사로 연하장 돌림	신년 인사
		도소주	몸이 튼튼해지고 병 물리침	병 퇴치
		마당 안 쓸기	재운이 나간다고 하여 마당을 쓸지 않음	금기
		딸 친정 안 오기	가난해질까 걱정 되어 출가한 딸은 친정에 오지 않음	
		생선 올리기	식탁에 생선을 올려 해마다 여유롭기를 바램. 이때 먹지는 않음	
		초지로 아이 입담기	상스럽지 못한 말을 해도 탈이 없도록 초지(草紙)로 어린 아이의 입 닦음	
원소절 (15일)		등달기	한(漢) 명제 때부터 불교의 법을 따라 등 달기 시작. 꽃등과 같이 예술로 발전	복 기원
		등롱수수께끼 맞추기	수수께끼를 적어 등에 내걸어 맞추는 놀이(猜燈謎)로 춘추전국시대에 부자들에 대한 풍자와 해학에서 비롯	
		원소먹기	대보름달처럼 동글면 단란해 진다고 하여 동글게 만든 새알탕 탕위안(湯圓)을 먹음	행복 기원
정초 및 원소절 놀이		사자무	위진에서부터 사자무 시작. 축제나 명절에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중국 전역에서 행함. 악을 쫓고 복을 불러오는 동물로 여겨지며 오색으로 장식하여 털을 털거나 구르는 문무와 흥쾌함을 표현한 무무	벽사진경을 위한 춤
		용춤	상고 때부터 길상의 상징인 용등무가 유래	춤
		니우양가 (扭秧歌)	사자놀이를 하면서 모내기춤(니우양가)을 출 때가 많음. 중국인들이 광장에서 추는 춤도 생산활동을 위한 모내기춤에서 유래. 농민이 모내기 할 때의 동작 표현	춤
		채고교 (踩高蹺)	나무막대기를 발밑에 묶고 노래나 춤추기	춤
		배타기춤	배가 움직이는 것을 모방한 획한선(劃旱船). 치수에 공이 있는 우임금 기념에서 유래	춤

표 2 일본의 정월 세시의례

기간	유형	목적과 내용	비고
12월	코토하지메 (事始め)	12월 8일부터 정월 준비. 이날 요괴가 온다고 하여 요괴막기를 위해 메가코(目籠, 대나무 바구니)를 대나무 장대에 달아서 처마 끝(のきさき)에 둠. 눈이 하나인 요괴는 구멍이 많은 메가코를 보고 놀라서 도망감	정월 준비 시작일
	오세이보 (お歳暮)	원래 세모에 도시가미와 조상의 영 혹은 살아있는 부모님께 쌀, 소금, 떡, 생선 등을 드리거나 보내는 타마쯔리(魂祭り)의 여파(名残り). 지금도 12월경에 감사인사와 선물 함	감사인사와 선물
	가도마쓰 세우기	새해의 신인 도시가미(歳神)의 강림을 상징하는 나무(門松)로 문 좌우에 새움	신 강림
	시메나와 카자리	새해 신을 맞이하기 위해 금줄에 장식물을 달아(注連縄飾り) 대문, 현관, 신단 등 집안 곳곳 장식	신맞이 장식
	스스하라이 (煤はらい)	중순에서 하순에 신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으로 집안의 그을음을 제거하고 액을 몰아내는 대청소. 신들이 머무는 신단, 가마도 등의 그을음을 제거. 이때 사용한 빗자루는 주력(呪力)이 머문 신성한 것이라 하여 입구에 세워두었다가 돈도야키 때 태움	신맞이 대청소
	도시코시소바 (年越しそば)	그믐날(大晦日) 밤에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해 넘김 국수를 먹음. 메일은 금을 모은다고 하여 메일국수를 먹으며 장수를 기원. 에도시대 상인들에서부터 비롯	메일국수 먹기
	가가미모찌 준비	사람의 심장을 본떠 만든 원형 거울처럼 둥근 떡(鏡餅) 두 개를 눈사람처럼 포개어 올려놓음	떡 준비
	떡 준비	신에게 올리고 야채와 고기 등을 넣고 끓인 떡국(雑煮)을 만들어 먹음	상동
	오세치 요리 준비	정초 3일간 먹을 오세치(お節) 요리	음식 준비
대정월	술 준비	신에게 올릴 술과 오토소(お屠蘇)에 넣을 한방약을 선달그믐 우물 속에 매달아둠	술 준비
	하쓰모데 (初詣)	해가 바뀌어 0시를 넘기면 신사와 사찰 참배	신 참배
	와카미즈 (若水)	한해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도시오토코(年男)가 새벽에 물을 길어옴. 멀리서 길어오면 더 좋고 타인을 만나도 말하지 않음	물
	오토소	아침에 가족이 모여 어린 사람부터 잔을 돌려 악귀를 물리고 불로장수를 위한 한방약을 섞은 술 마심	약술
	떡국 (雑煮)	도시가미사마에게 올렸던 떡을 내려 야채, 해산물, 닭고기를 넣고 끓임. 관동지방에서는 둥근떡을 넣고 된장으로 하며 관동지방에서는 썰어 넣은 떡을 넣고 간장으로 끓임	
	오토시타마 (お年玉)	옛날에는 도시가미사마에게 올렸던 떡을 나누어주어 '오토시타마'라고 했음. 근래에는 돈을 줌	
	하쓰유메 (初夢)	2일은 새해 일을 시작하는 첫날로 이날 꿈을 통해 그해 운수, 봄, 길몽을 위해 무로마치 시대부터 칠복신을 태운 보물선 그림을 베개 밑에 놓고 자는 풍습이 있었으며 후지산, 메, 가지를 보면 좋음	꿈
가키조메 (書き初め)	그해 포부를 적은 신춘회호 씌. 길방인 예호(惠方)를 향해 경사스러운 말이나 시가 적음(2일)	吉書	
정초	나나쿠사(七草) 가유	한 해 동안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여 이날 7가지 나물을 넣어 죽 끓여 먹음(7일)	나물죽
	가가미비라키 (鏡開き)	칼을 사용하지 않고 손이나 나무망치로 가가미모찌를 포개어 떡국이나 시루코(汗粉)를 해 먹음(11일)	떡국
	카도즈케 (門付け)	전전(戰前)만 하더라도 정월이 되면 '카도즈케'라는 예인들이 타이고(大鼓)와 사미센을 울리며 가가호호 다니면서 사자무(神樂) 등을 추었음	예인들의 걸립
	히온도리	정초에 일부지역에서는 '히온도리(ヒヨンドリ)'라는 제사예능(祭事藝能)이 전승. 고대의 우타가키(歌垣, 남녀가 노래와 춤을 주고받는 행사)와 통하며 풍작과 무병식재(無病息災) 기원	풍작기원의 예능
	하초야마이리 (初山入り)	산일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나타와 떡, 씻은 쌀, 시메나와(금줄), 카이다레(대나무에 색지를 끼운 것)를 들고 산에 가서 방향이 좋은 곳의 산신목 앞에 놓고 기원. 그리고 땀감 등 산일을 함. 날짜는 2일, 4일 등 지역에 따라 차이	초산제
다우치코우 (田打講)	논의 한쪽에 종이를 매단 억새풀이나 대나무 조릿대 밑에 땅을 파고 그곳에 떡과 씻은 쌀 놓음. 농사의 신(田の神)에게 풍작 기원하여 모의경작을 하는 예축의례(중순)	모의경작 예축의례	



기간	유형	목적과 내용	비고
세초분	복콩 뿌리기	입춘 전날인 세초분(節分)은 렌고시(해넘김)의 의미가 있음. 사찰이나 신사에서는 액을 물리고 복을 주기 위해 도시오토코가 복콩 뿌리는 ¹⁸ 풍속이 있으며 과거 아이들도 콩을 받기 위해 가가호호 다녔음. 나이 수만큼 콩 먹으며 행운 기원. 이리리 끝에 콩 놓고 점을 칩	콩, 축귀
	히이라기 걸기	문에 히이라기(柊, 호랑가시) 나뭇가지 꽂아둠	가시나무, 축귀
	흰쌀밥 지어 올리기	일부지역에서는 정월과 같이 고젠(흰밥)을 지어 무, 나마스 ¹⁹ 와 함께 신단에 올림	설날과 같이
	나타모찌 (ナ夕餅)	도시코시(해넘김)의 날 떡을 빚어 축하 및 액떡으로 나타모찌를 빚는 지역 있음	액떡
	초이나 행사	일부지역에서는 초이나(追儺)행사를 함. 신사 배전(拜殿)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매화가지로 상을 두드림	추나
	아이카가시 (焼い嗅がし)	세초분에 방문하는 악령, 사귀를 쫓아내기 위해 악취가 나게 물고기의 머리, 털 등을 태워 호랑가시나무(히이라기)잎을 첨가하여 문구(門口)에 꽂아둠	악취로 축귀
소정월	아즈키가유 먹기	새해 풍작을 기원하며 아즈키가유(팥죽) 먹음(15일 아침)	팥죽
	돈도야키 (사기초)	15일 전후에 가도마츠나 시메나와가자리 등 대정월에 사용했던 물품 태움. 연기를 타고 도시가미가 올라간다고 하며 이때 막대기 끝에 떡, 토란, 경단 등을 꽂아 구워 먹으면 그해 병에 걸리지 않는다 함. 이때 막대기와 구운 떡을 집 현관에 두고 액막이로 사용	액막이
	도조신 (道祖神) 마츠리	마을입구에 세워진 도조신(사이노가미)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을 막고 여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 또한 아이들에게는 지장과 비슷한 측면 있음. 일부지역에서는 도조신 마츠리를 하며 이때 불에 도조신을 던져 인간의 액을 도조신이 대신 받음. 아이들은 악마퇴치라고 해서 도조신을 들고 마을을 돌며 가가호호 방문(15일)	액막이
	소정월 방문	일부지역에서는 소정월의 관행으로 아이들이 목편을 들고 마을을 돌, 아이들이 미노(짚으로 만든 우비)를 걸치고 마을을 방문하여 나무로 만든 농구(農具) 모형을 가정에 나누어주고 떡이나 쌀, 돈 등을 받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관행은 마을의 축복과 액을 막기 위한 것이나 마을을 축복해서 걷는 정월의 신들의 존재를 기저로 한 방문의례(15일)	축복 및 액막이
	모찌바나 (餅火) 하나단고 (ハナ團子)	소정월의 장식인 모찌바나는 풍요예축을 위해 농가의 토간(土間)에 큰 나무를 세우고 떡과 단고를 달아놓음. 하나단고는 토간 한쪽에 걸기를 놓고 그 속에 사람 키만큼 되는 나무를 동여매고 단고를 장식한 것인데 가마니, 아채, 물고기 형태 등 단고 모양을 다양하게 만들(15일)	풍요예축을 위한 떡나무 장식
	케즈리하나 (削り花)	풍요예축을 위해 나무의 표면을 깎아서 꽃처럼 장식(15일)	풍요예축 나무장식
	이와이기 (祝い木)	액막이를 위한 소정월 장식으로 '뉴기', '오니기'라고 불리는 이와이보(비는 막대)를 문구(門口)에 세움(15일)	액막이 장식
	나리키제메 (成木責め)	나타 ²⁰ 와 팥죽, 나리몬소노보 ²¹ 를 들고 가서 나타(낫)로 감나무를 찍은 후 나리몬소노보에 팥죽을 바르고 그 주위를 나리몬소노보로 때리며 많이 열리기를 축원. 이 막대로 새댁의 엉덩이를 두드리면 아이가 생긴다고 함(15일)	과일나무 풍요기원
17일	산신고 (山神講)	일부지역에서는 마을이나 조(組)마다 산신고가 조직되어 제장에서 제를 지내며 그해 산일의 무사와 풍요기원(17일)	무사와 풍요 기원

3. 한국의 정월 세시의례

여기에서는 『東國歲時記』, 『涇陽歲時記』, 『京都雜誌』 등 옛 문헌도 참조하였으나 노년층들의 기억 속에 있는 현대 정월 세시의례에 중점을 두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경기도 세시풍속』(2001) 등 각지의

조사내용 및 필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했던 내용을 참조하였다.²² 이 내용이면 한국의 정월 세시의례의 종교적 성격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8 뿌린다는 것은 농사일에서 씨뿌리는 것을 의미. 이이쿠라 하루타케, 허인순 외 역, 앞의 책, p.65.

19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 무, 당근, 유자를 채 썰어서 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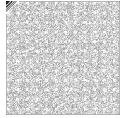
20 나무를 베는 낫으로 한국의 조선낫과 모양에서 차이.

21 도시가미다나에 올려놓고 빌던 30cm 정도의 막대.

22 필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세시풍속 조사사업(2001)에 참여하여 전국에 걸쳐 조사한 바 있으며 그동안 각종 사업에도 참여하여 세시풍속을 조사하였다. 근래에는 일본과 중국에서도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일부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표 3 한국의 정월 세시의례

기간	유형	행위	비고
선달 그믐	집안청소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청소	
	제사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조상님께 제례를 지냄	
	묵은세배	한해를 마무리 하며 감사의 뜻으로 어른께 인사	
	수세	집을 자지 않음	
	집안에 불밝히기	집안에 불을 밝혀둠	
설날	차례	조상님께 차례	
	세배	어른께 새해인사	
	성묘	산소에서 새해인사	
	청첩	처음 듣는 동물이 우는 소리로 풍흉, 길운, 날씨 등점 침	점
	유모일, 무모일	설날이 유모일에 들면 풍년, 용, 뱀과 같이 무모일에 들면 흉년	점
정초	쥐날	쥐불놀이, 콩 볶아먹기	
	소날	쇠죽에 콩을 넣어주고 도마질(칼질) 하지 않음	
	호랑이날	호환 방지 위해 여자들 출입삼가. 호랑이가 머리를 앓는다고 하여 절구질하지 않음	
	토끼날	남자가 대문을 열어야 재수가 좋다고 하여 이후 여자들이 나감. 여자들 바깥출입 삼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릇도 집안에 들이지 않음. 실을 잣거나 베를 짜면 장수	
	용날	일찍 우물 길어옴, 칼질 하면 '용머리 자른다' 함	
	뱀날	아침에 막대에 썬 새끼줄을 매달고 뱀 친다고 소리치며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문밖 저멀리에 버림. 머리를 깎거나 감지 않음. 뱀을 없앤다고 하여 칼질을 많이 함	
	원숭이날	'칼질하면 손 뻐다'고 하여 피하며 나무에 오르지 않음	
	닭날	여자들 힘든 일 하지 않음, 일을 하면 닭발처럼 거칠어짐, 바람이 불면 그해 흉년 둠	
	돼지날	산촌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나와 화에 불을 붙여 이리저리 내저으며 '돼지 주둥이 지진다'고 하며 돌아다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산돼지를 몰리치기 위함	
	말날	장 담그기	
	귀신날	신발 들어놓기, 문 앞에 체 걸어 놓기, 아광귀쫓기, 머리카락 태우기	
	토정비결이나 신수점 보기	토정비결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서 신수점	
	웃점	웃가락을 세 번 던져 신수 봄	
	세화(歲畵)와 문배(門排)	조선시대 도화서에서 수성(壽星)선녀와 직일신장(直日神將)을 그려 임금에게 드리고 축수(祝壽) 기원, 궁궐에서는 문배를 붙였는데 민가에서도 이를 본받아 그림 붙였음	
	삼재막기	무당집이나 사찰 등에서 삼재막이 함	
	홍수막이	무당집에서 도액을 막기 위해 홍수막이 함	
	엄나무걸기	잡귀를 막기 위해 엄나무를 대문 위에 걸어놓음	
	복조리	복조리를 구입해서 방문 위에 걸어놓음	
	연날리기	정초부터 대보름까지 연을 날리고 15일에는 액을 물린다고 하여 연을 날려 버림	
	널뛰기	명절에 여자들은 널뛰기 함	
팽이치기	정초에 남자아이들은 팽이치기 함		
지신뵙기	정초에 풍물패가 가가호호를 돌면서 축원		
입춘	입춘축	입춘시에 맞추어 입춘축을 대문에 붙임	
	보리뿌리점	보리뿌리가 내린 숫자를 보고 풍흉 점침	
	입춘맛이	무당집이나 사찰에서는 입춘맛이 차성이나 불공	
대보름	어부숨	물가에서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1년 내내 좋게 하기 위해 조밥을 종이에 싸서 강물에 던짐	14일 저녁
	제웅치기	"강남각시 버린다"고도 함, 액을 물리기 위해 14일 저녁에 달이 뜰 때 짚으로 만든 제웅에 밥 넣고 이름과 생년월일 적어 세 갈래 길에 버림	14일 저녁
	집안에 불밝히기	대보름에는 집안에 불을 밝혀 놓음	14일 저녁
	식구불	접시에 콩기름이나 들기름을 붓고 목화솜으로 심지를 만들어 식구 수대로 불을 붙여서 타는 것을 보고 그해 운 점 침	14일 저녁
	잣불켜기	잣에 바늘을 꽂고 식구의 이름을 대며 불을 붙여 불이 일어나는 형태를 보고 그 해 운 점 침	14일 저녁



기간	유형	행위	비고
대보름	달맞이	달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올라가서 달맞이. 달을 보고 소원 빔, 달이 청명하면 농사가 잘 됨	14일 혹은 15일 저녁
	달집태우기	나무로 달집을 만들어두었다가 달이 떠오를 때 불을 피움. 짚으로 만든 허재비를 태우고 액 물림	15일 저녁 ²³
	줄다리기	남녀 편을 갈라 풍년을 위해 여자가 이기도록 함	15일 저녁
	다리밟기	다리 위를 밟아야 다리가 튼튼해진다고 함	15일 저녁
	모깃불 피우기	모깃불 피워놓음	15일
	뽕줍기	새끼줄을 나무에 묶어서 '뽕 쫓는다'고 집안 곳곳을 다님. 아주까리 가지를 불에 그슬리면서 "뽕 그슬자"고 하는 곳도 있음(충북 영동)	15일 아침
	새쫓기	새 쫓는 시늉함	15일 아침
	뽕가리대 세우기	짚을 장대에 묶어서 세운 다음 벼, 기장, 피, 조, 목화 등을 매달아놓음	14일
	오곡밥	오곡으로 밥을 하여 나물반찬으로 먹음	14일 혹은 15일
	아홉 번 행동하기	밥 아홉 번 먹고 나무 아홉 짐 함	14일 혹은 15일
	복도 훑치기	부잣집 마당에서 훑을 가지고 옴	15일
	용알뜨기	새벽 일찍 우물에 가서 남보다 먼저 물 길어옴	15일 새벽
	보리타작	14일 저녁에 수수깡으로 보리 등 곡식 모양을 만들어 잣간에 꽂아두었다가 아침에 마당에서 타작하는 시늉으로 재를 털면서 풍년기원	15일
	과일나무 시집보내기	풍작을 위해 과일나무 가지 사이에 돌을 끼움	15일
	소밥주기	키에 밥과 나물을 담아 소에게 줌.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 나물을 먼저 먹으면 흉년 든다고 함	15일
	개보름쇠기	아침부터 개를 굶긴 후 해가 지면 저녁에 줌	15일
	밤새기	14일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 센다'고 하여 잠을 자지 않음	14일 밤~ 15일 새벽
	부럼 깨기	그해 부스럼을 방지한다고 하여 잣, 호두, 밤, 땅콩 등으로 부럼 깨기	15일 아침
	귀밝이술	아침에 밥을 먹기 전에 귀밝이술 마심	15일 아침
	더위팔기	해뜨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을 불러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함	15일 아침

Ⅲ.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종교적 성격과 구조

1.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구조

세시의례는 역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농경국가에서는 경작시기를 계절의 순환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세(歲)와 시(時) 즉, 한해의 때에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時)는 사시(四時) 즉, 1년 중 사계절을 말하지만 월중에 회(晦), 삭(朔), 현(弦), 망(望), 일중에는 단(旦), 주(晝), 모(暮), 야(夜)로 사시를 나눌 수 있다. “고대 중국 은주(殷周)시대에는 역법(曆法)이 정화

치 않아 농업활동은 주로 일월성신(日月星辰)의 관찰에 의해 진행하였다. 춘추시대에 와서 토규(土圭)로써 해의 그림자를 측정하여 동지와 하지의 정하고 윤달을 넣어 사시성세(四時成歲)의 제도를 점차 완성하여 농업활동에도 확실한 근거가 있게 하였다.”²⁴ 이렇듯 해와 달, 별자리의 오랜 관찰 끝에 역법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중국의 역법은 태음태양력(太陰太陽曆)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세시의례에서도 이것이 투영되어 있다. 음력에 기초한 명절도 있지만 입춘과 같이 양력에 기초한 시(時)도 중요한 절기이다. 중국 전국시대에 고안된 24절기는 태양에 맞추어 1년을 24시기로 구분

23 대보름의 의례는 14일과 15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지는 않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는 오곡밥을 14일 오후에 먹는데 경상도에서는 15일 새벽에 먹는다.

24 陶立璠·김종직 역, 1997, 『중국민속학의 이해』, p.262.

하여 음력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태음태양력에 기초한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는 근대 이후에도 이어져 음력 정월초하루를 시작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역법을 이용해 오다가 1896년 1월 1일(고종 32)에 서양력을 수용하였으나 설날은 그대로 이어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일제는 설날이 되면 방앗간을 폐쇄하고 새 옷을 입고 나온 아이들에게 먹질을 하였으며 일본의 명절과 의식을 강요하였다. 일본의 명절인 천장절(天長節), 명치절(明治節), 기원절(紀元節) 등을 국경일로 정하고 신정에는 새끼줄로 만든 ‘시메나와’ 장식을 대문에 달고 단오에는 ‘고이노보리’라고 하여 형겅으로 만든 잉어를 띄우게 했다.²⁵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선 후 ‘구정’과 ‘신정’이라는 이중과세(二重過歲) 경향이 있었고 한동안 신정을 권장하기도 하였으나 1985년 구정을 ‘민속의 날’로 정하여 하루 휴일로 하다가 1989년에 공식적인 설날로 인정하고 연휴로 하였다.

일본도 메이지시대 이전에는 중국의 역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24절기는 중국의 기후에 입각하여 붙여진 것이라 일본의 기후와 맞지 않는 시기와 명칭이 있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24절기 외에 토왕(土用), 하치주하치야(八十八夜), 뉴바이(入梅), 한계쇼(半夏生), 니하쿠토카(二百十日) 등 ‘잡절’이라는 구분을 도입하였다.²⁶ 일본은 메이지시대인 1872년부터 양력을 사용하였다. 그러자 그전보다 달력일이 1개월 정도 빨라져서 종래의 계절 감각에서 보면 아직 12월인데도 정월 행사를 해야만 하는 등 특히 연중행사에서 모순이 생겼다. 계절감을 맞추기 위해 음력 7월 15일이었던 오분을 양력 8월 15일에 하는 등 옮긴 것도 있다.²⁷ 또한 시기적으로 모순이 있으나 양력에 하는 행사도 있고 일

부 행사는 음력에 맞추는 것도 보여 지는 등 음력과 양력이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그 본래 시기는 대부분 음력에 맞추어서 하던 것이기에 원래 세시의례의 의미와 종교적 성격을 이해하고 한·중·일을 견주어 보는 데 무리는 없다.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는 춘절²⁸이라는 큰 틀에서 논할 수 있다. 정월초하루를 말할 수도 있지만 전통 의식 상 춘절은 납월(12월) 초8일 납제 혹은 23~24일(小年)의 조왕제로부터 정월 15일까지이다. 그중 제석(除夕)과 정월 초하루가 최고조가 된다. 납월은 춘절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한 기간으로 납파일과 조왕제에서 신년의 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춘절 준비가 시작된다. 이 무렵에 집안 청소를 하고 춘절에 사용할 물품과 선물을 구입한다. 한국이나 일본보다 중국의 선달그믐 밤은 더 분주하고 요란하다. 춘련을 붙이고(벽사), 문신의 화상을 붙이고(벽사), 가족이 둘러앉아 연야반을 먹으며 만찬을 즐기고 밤을 지새운다(수세). 이렇게 납월의 의례에는 신년의 복을 기원하고 춘절 준비를 하며 벽사와 축귀를 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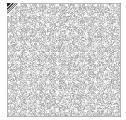
춘절(초하루)이 되는 0시를 넘어서면 재신을 맞이하며 불을 지펴 폭죽을 터뜨린다(괴물퇴치). 아침에 도소주를 마시며(건강), 마당 안 쓸기, 출가한 딸 친정 안 오기, 식탁에 생선 올리기 등을 통해 재운을 위한 금기를 지키고 초지(草紙)로 아이의 입을 닦아서 입부정으로 탈이 없도록 한다. 원소절은 한해의 으뜸인 밤으로 관등과 달맞이를 한다(복 기원). 초룻을 달고 오색천으로 장식을 하고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모습을 화수은화(花樹銀花)라고 하였으며 연인들이 만나는 날이기도 하다. 원소절은 서한(西漢)에서 중시되어 한나라 명제는

2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설 부분 참조.

26 이이쿠라 하루타케 · 허인순 외 2인 역, 2010, 『일본의 연중행사과 관습 120가지 이야기』, 어문학사, p.20.

27 이이쿠라 하루타케, 앞의 책, pp.18~20.

28 중국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인 1912년에 서기(西紀)를 받아들여 양력 1월 1일은 ‘신년’, 음력 정월 초하루는 ‘춘절’로 불렀다. 丘桓興, 남종진 역, 2002, 『중국 풍속기행』, 프리미엄박스, p.109.



정월 15일에 스님들이 불사리를 우리러 본다고 하여 불법을 선양하기 위해 이날 밤 궁중과 사원에 연등표불(燃燈表佛) 하도록 하였는데 이로서 불교문화의 확대 및 도교에 영향을 미치면서 점차 중국에서 발전되었다는 설과 원소절 연등 습속이 도교의 삼원설에서 기원했다는 말도 있다. 상원(1월 15일), 중원(7월 15일), 하원(10월 15일), 이 삼원의 분별은 천지수 삼관²⁹으로 천관은 연등을 만들어 즐기는 것을 좋아하여 상원절에 만들었다는 것이다.³⁰ 원소절은 춘절의 일부로서 영춘활동이 고조되며 송대부터 둥글게 만든 새알탕인 원소(元宵)를 먹는다. 원소를 둥글게 만드는 것은 대보름달이 둥글면 사람들이 단란해진다 하여 명절음식이 되었다(행복 기원). 사자무, 용춤 등을 통해 '벽사진경(辟邪進慶)'을 기원하며 여러 놀이를 하며 축제의 시간을 보낸다.³¹

일본의 정월 세시의례는 크게 1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쇼가츠 준비과정, 쇼가츠(대정월), 고쇼가츠(소정월), 그리고 또 하나의 해넘김(렌고시)을 의미하는 세츠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춘이 신년의 첫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츠분은 전날이 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양력에 맞추어 세시의례를 행하기 때문에³² 구래(舊來)의 시간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음력에 기초한 전통적 세시의례의 기반에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이렇게 일본의 세시의례는 세 번의 정월로 구조화해 볼 수 있다.

12월 특히, 연말은 정월 준비가 핵심이다. 도시가 미사마를 위한 가도마쓰를 세우고 집안 곳곳 특히 신

이 지나가거나 머무는 곳, 신으로 상징되는 곳곳에 시메나와카자리로 장식을 한다. 신에게 바칠 음식과 술, 그리고 정초에 가족들이 먹고 손님을 접대할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연말에 행해진다. 정초 3일간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해 놓은 오세치 요리를 먹으므로 주부들은 여가를 가질 수 있다. 분주한 쇼가츠를 배려한 지혜가 숨어 있다.³³

쇼가츠(대정월)가 되면 촌락의 경우 먼저 마을의 신사나 사찰을 참배하며 새해 인사를 한다. 이른 새벽에 도시오토코(年男)는 물을 길어오며 아침에는 약술(오토소)을 마신다. 2일부터는 새해의 일상적 일이 시작되는 날로 인식되기에 그날 꾸는 꿈을 '하쓰유메'라고 하여 그해 운수를 본다. 7일에는 나나쿠사가유(七草粥)를 먹는다. 정초에는 예인들이 걸립을 다녔으며 일부에서는 남녀가 노래와 춤을 주고받으며 '히요도리'라는 풍작과 재액을 기원하는 예능을 하였다. 산일의 안전과 풍요를 위해 '하츠야마이리(初山入り)'를 하며 모의경작 예측의례인 '다우치코우(田打講)'를 하였다.

세츠분(節分)에는 콩을 뿌리고(잡귀퇴치), 호랑가시나무 가지에 정어리를 꽂아 문 위에 걸고(액막이), 처마 끝에 귀신을 위협하기 위해 오니오도시(オニオドリ)를 걸고(축귀), 잡귀와 병을 쫓기 위해 일부 신사에서는 츠이나(追儺) 행사를 하며 지역에 따라서는 신년의 의미로 쇼가츠(정월)와 같이 흰밥, 무, 나마스를 신단에 올리고 도시코시(해넘김)의 의미를 가진 축하와 액떡으로 나타모찌(ナタ餅)를 빚기도 한다. 다음날인 입춘에

29 삼관은 초기 도교에서 이미 중요한 지위를 점유하여 한말 천사도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三官手書 의식을 병행하였다. 즉, 한자의 성명과 죄를 인정하는 뜻을 적은 종이를 분별하여 천지수 삼관에 봉정한다. 천관은 복을 주고 지관은 죄를 면해주며 수관은 액을 풀어주는데 남북조시대 삼관은 삼원으로 삼원천관자미대제, 중원지관청허대제, 하원수관동음대제가 되었다.

30 田建華·向良喜, 2012, 『中華民俗全知道』, 中國紡織出版社, pp.8~9.

31 蒯大申·祚紅·박현규 역, 1999, 『중국민속학』, 백산자료원, p.30.

32 세츠분을 현재 일본에서는 양력 2월 3일에 맞추고 있으나 원래 음력에 기반한 정월의 의례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월의 범주에서 논한다.

33 물론 여기에는 다른 이유도 있다. 대문을 열지 않고 집안에서 근심했던 것은 복신이 집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설날에 청소를 하거나 먼지를 털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 복이 나간다는 속신과도 통한다. 그러므로 설날에는 부녀자들이 물에 손을 담그지 않는다 하여 가능하면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꺼려했다. 노성환, 2019, 『조선통신사가 본 일본의 세시민속』, 민속원, p.23.

는 사찰 등지에서 ‘立春大吉’이라고 쓴 입춘축을 문에 붙이고 나누어주기도 한다. 즉, 잡귀퇴치, 액막이, 축귀, 정월 축하와 같은 의미의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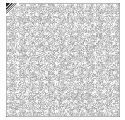
소정월(15일)도 신년의 의미를 가지며 적지 않은 의례가 있다. 아즈키가유(팥죽)를 먹으며(풍작기원), 돈도야키를 하여 쇼가츠에 사용된 가도마츠, 시메나와가자리 등을 태우고 떡을 구워먹고, 구운 떡을 막대기에 꽂은 그대로 현관에 두고(불의 정화, 액막이), 농가 토간(土間)에 떡과 단고를 매단 모찌바나(餅火) 혹은 다양한 단고를 달아서 절구 위에 둔 하나단고(ハナ團子, 떡나무처럼 되기를 기원하는 풍요예축), 나무를 깎아서 꽃처럼 장식한 케즈리하나(削り花, 풍요예축), ‘뉴기’ 혹은 ‘오니기’라고 불리는 이와이보(祝い棒, 빌기 위한 막대)를 문구(門口)에 세움(액막이), 감나무에 상처를 내어 ‘나리몬소노보(ナリモソの棒)’라고 불리는 막대에 팥죽을 발라서 때리며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나리키제메(成木責め, 풍요기원), 도조신을 불에 던져 인간의 액을 대신 받도록 하거나 ‘악마퇴치’라고 해서 도조신(道祖神)을 들고 마을을 돌며 가가호호 방문(액막이, 악마퇴치), 아이들이 우비를 입고 가가호호 방문하여 나무로 만든 농구(農具) 모형을 나누어 주는 행위(정월신의 방문과 축복, 예축) 등이 있는데 소정월은 풍작기원을 위한 예축, 정월신의 방문, 불의 정화, 액막이와 같은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설달그믐이 되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날이라 삼가 조심하며 새해 준비를 한다. 집안 청소를 하고 가까운 집안 어른을 찾아뵙고 지난 한해 감사의 뜻으로 ‘묵은세배’를 드린다. 한국인에게 정월은 크게 설날, 입춘, 대보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설날을 통해 새해가 열리지만 입춘도 또 하나의 새해 시작을 의미하며 새해의 액을 막는 것이 이날 의례의 주요한 목적이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는 여가가 허용되지만 대보름에 농사와 관련된 예축·예행을 하고 난 후 다음 날부터는 일상적 일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정초에 연 날리기를 하던 아이들도 대보름날 연줄을 끊어 액연을

멀리 보내고 더 이상 날리지 않는다. 대보름은 여가와 일상을 가르는 경계시점이 된다.

설날의 세시의례는 차례와 성묘, 세배가 대표적이다. 차례와 성묘가 조상님에 대한 인사라면 세배는 살아계신 어른에게 드리는 인사이다. 이렇게 한국인의 설날 세시의례는 조상과 웃어른에 대한 새해인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구조이다. 설날에 이어진 정초는 12지와 관련된 속신과 금기(설날이 유모일인가 무모일인가에 따른 풍흉점, 용날은 칼질 안 한다 등 금기), 액막이(홍수막이, 엄나무 걸기 등), 한해의 복, 풍요 기원(지신 밟기, 복조리 등) 등의 세시의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입춘도 액막이와 한해의 풍요와 복을 기원하는 의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당집이나 사찰에서 행해지는 입춘 맞이, 춘첩, 보리뿌리점 등의 사례가 있다. 정월의 세시의례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때가 대보름이다.

대보름의 세시의례는 14일과 15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4일부터 대보름 행사가 시작된다. 한국의 대보름 세시의례를 볼 때 농사철을 위한 예축과 예행연습, 그리고 농사일에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충해, 잡초, 소나기를 만나지 않고자 하며 사람과 가축의 건강, 재수와 풍요 기원 등을 기본축으로 한다. 특히 오곡밥을 먹을 때는 이러한 성격이 잘 드러난다. 오곡밥을 먹을 때 김치를 먹으면 생고자리에 쏘인다. 밥을 비벼 먹으면 눈에 잡초가 생긴다. 물에 말아먹으면 일 할 때 비가 온다. 보름밥을 먹을 때 농번기에 일 할 때처럼 상을 퍼지 않고 바닥에 놓고 먹는다. 아침에 밥을 손갈로 먹으면 김팔 때 큰 이랑이 걸린다고 하여 젓가락으로 먹는다. 보름밥은 새벽 일찍 불을 켜놓고 먹는다. 첫 손가락은 복쌈을 싸먹는다 등은 대보름날이 농사철을 예행연습하는 의미와 그에 따른 속신과 금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홉 번 행동하기도 부지런함을 중시하는 농사철과 관련이 있으며 모의보리타작 행위는 예축행사이며 과일나무시집보내기, 줄다리기는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다. 가축의 목에 복숭아 가지를 감아 주는 것(목서리)은 가축에게 벌레가 생기지 않기를 비



는 것이며 개보름쇠기 역시 개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인데 사람도 질병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부럼깨물기(부스럼 방지), 귀밝이술, 더위 팔기, 다리밧기 등이 행해진다.

모깃불피우기, 뱀쫓기, 새쫓기 등은 해수(害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이며 제웅치기, 어부슴 등은 액막이이다. 잣불켜기, 달불이, 사발점, 소밥주기, 식구불, 달점 등은 풍흉이나 운수를 점치는 것이다. 용알뜨기나 복토 흙치기, 집안에 불 밝히기, 수세 등은 재수와 복을 비는 의미이다. 이상에서 3국 정월 세시의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정월 무렵 세시의 주요 변곡점

국가	정월 무렵 세시의 주요 변곡점	비고
중국	선달 초파일(臘八) / 조왕제를 지내는 선달 23~24일 무렵인 '小年(작은설)' / 춘절(초하루) / 원소절(대보름)	12월부터 춘절에 포함
일본	대정월(쇼가츠) / 소정월(고쇼가츠, 대보름) / 세츠분 ³⁴	세 번의 변곡점에 있는 세 번의 정월
한국	설날 / 입춘 / 대보름을 중심으로 구조화	입춘은 또 하나의 '설'을 상징

이러한 신년의 시간성 속에 공간 또한 새로운 '신년의 공간'으로 의미화되며 재액을 막고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의 염원을 의례와 장식, 비방(秘方)으로 담아낸다. 한·중·일 정월의 세시의례는 이러한 시간성과 공간성에서 기제화된 언어이자 코드이다. 전거한 바와 같이 설을 인식하는 시간적 다층구조의 변곡점³⁵ 위에 정월 세시의례가 존재한다. 여기서 연말의 대청소는 또한 새로운 시공(時空)을 맞이하고자 하는 변곡의 의례성을 담고 있다.

정월의 시간인식에서 중국의 경우, 전통적인 설

(춘절)에 대한 생각이 선달 초파일부터 시작되는 점, 조왕제를 지내는 선달 23~24일 무렵을 작은설(小年)로 보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본은 초하루를 대정월(쇼가츠), 대보름을 소정월(고쇼가츠), 그리고 세츠분도 정월의 일종으로 보는 점이다. 한국에서는 입춘도 설의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정초 의례에서 12지일이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보름은 농사를 앞두고 예측하고 모의예행(模擬豫行)의 시간적 의미가 크다. 여기에서 일본과 중국의 설 인식에서 흥미로운 차이점이 보인다. 즉, 중국의 작은설(조왕제)-설(춘절), 일본의 대정월(설)-소정월(대보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작은설이 납월에 있다. 그만큼 중국의 경우 정월을 맞이하는 납월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초하루와 보름의 구도에서 대정월과 소정월이 놓인다.³⁶

2.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종교적 성격

1년을 주기로 한 전환의 시간은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시간성을 부여하며 그러한 시공의 변곡점에서 인간이 자연과 환경에 대처하며 종교성의 발원(發願)을 표현하고 의미화한 것이 세시의례이다. 그 내용은 각 문화가 처한 상황과 종교적 배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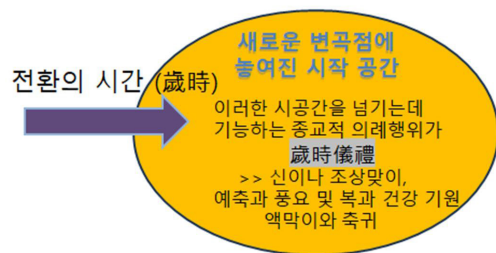


그림 1 정월 세시의례와 시공간.

34 물론 현재 일본에서는 양력에 맞추어 세시의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책력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한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래의 음력에 중점을 두어 논하도록 한다.

35 세시의례가 존재하는 시간적 변곡점은 역법(음력, 양력-24절기), 생업력(지역의 생태와 기후, 작물), 종교력(불교, 유교, 무속, 도교, 신도)과 맞물린 시간관에 의해 형성되며 정월은 이것에 기초한 시작의 시간이다.

36 오늘날 한국과 중국이 음력설을 쇠는 반면 일본은 재래의 정월 세시의례를 양력에 맞추어서 하게 되면서 자연현상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양력 15일은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재래의 대보름이 아님에도 국가시책에 따라 여기에 맞추어 세시의례를 하니 역법체계와 어긋나는 인위적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에서 보이는 종교성은 신, 예축과 풍요 기원,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 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아래에서는 3국에서 드러나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검토해보겠다.

가. 중국 - 신의 측면에서 보면 조왕에서부터 논할 수 있다. 춘절의 시작이라고 하는 조왕제가 행해지는 23~24일은 '소년(小年)'이라고 하는데 조왕야는 납월 23일에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일가의 선행과 악행을 보고하고 옥황상제로부터 그 집이 받을 신년의 복을 통보 받는다. 제석(除夕)에 집으로 돌아온 후 보호와 감찰을 한다. 신년의 복은 이렇게 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조왕을 잘 대접하고 설탕과 떡을 주어 옥황상제에게 잘 말씀해 달라고 하는 바람이 조왕제에 담겨있다. 신도와 울루, 당나라 태종의 신하인 진숙보와 위지공, 불교의 사천왕, 청룡, 백호 등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문신으로 숭배된 신들도 춘절에서 드러나는 신격(神格)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생업과 관련한 예축과 풍요를 위한 기원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나 일본의 정월 세시의례에서 예축과 풍요가 많은 반면, 중국에서는 정도가 적은 편이다. 중국에서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으로 망신(芒神)이 있는데 입춘에 사람들이 망신으로 분장을 하고 가면을 쓴 다음 흙으로 빚은 소를 끌고 다니면서 풍년을 기원한다.³⁷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의 측면에서도 정월 세시의례에 담겨있는 종교성을 알 수 있다. 중국 정월 세시의례에서는 예축의례보다는 액을 막거나 귀신을 쫓고 복과 장수, 재물을 기원하는 성격이 압도적이다.

나. 일본 - 새해의 신인 도시가미에 대한 신앙이 두드러진다. 새해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시가미(歳神)를 맞이하고 보내는 것이 쇼가츠 세시의례의 중심 모티프가 된다. 12월에 도시가미에 감사하는 연말선물 오세이보(お歳暮)를

하고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인 스스하라이(대청소)를 하며 도시가미의 강림을 상징하는 가도마츠(門松)를 세우고 신을 맞이하는 장식으로 시메나와카자리를 집안 곳곳에 걸어놓는 것에서 정월 준비는 시작된다.

쇼가츠(대정월)가 되면 행복을 가져다주는 도시가미의 왕래를 축하하는 뜻이 담긴 새해인사로 “아케마시테 오메테도 고자이마스”라고 한다. 도시가미를 비롯해 집안의 가신(家の神), 조상(佛壇)께 음식을 올리고 인사를 하며 ‘하쓰모데(初詣)’라고 하여 신사와 사찰 등에도 참배한다. 고쇼가츠(소정월) 전후에 행해지는 돈도야키에는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해 설치해 놓았던 가도마쓰나 시메나와가자리 등을 태우고 이때 연기를 타고 도시가미가 올라간다고 여긴다. 지역에 따라서 ‘소정월 방문’이라고 하여 아이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축복을 해주고 액막이를 기원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을 축복하기 위해 온 도시가미의 방문이 인식의 기저에 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생업과 관련한 예축과 풍요를 위한 기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정초에 눈에 띄고 씻은 쌀을 놓고 풍작을 기원하는 ‘다우치코우(田打講)’, 산에 가서 산신께 제를 올리고 산일의 안전과 풍요를 비는 것, 그리고 ‘히요도리(ヒヨドリ)’ 역시 풍작을 기원하는 예능이다. 특히 소정월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의례가 많다. 15일 아침에는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아즈키가유(小豆粥)를 먹으며 나무에 떡을 장식해 놓는 모찌바나(餅火), 하나단고(ハナ団子), 나무를 깎아서 꽃처럼 만든 케즈리하나(削リ花), 감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기원하는 나리키제메(成木責め)도 과일나무에 대한 풍요를 기원하는 종교성을 엿볼 수 있다.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의 측면에서도 정월 세시의례에 담겨있는 종교성을 알 수 있다. 1일 새벽에 걸어오는 와카미즈(若水)는 한해 나쁜 기운을 씻어내고 좋은 일을 바라고 아침에 약술인 오토소를 마시는 것은 장수와 건강에 대한 염원이 담겨있고 7일에 먹는 나나쿠사가유(七

37 국립민속박물관, 2006, 『중국대세시기』, p.262.



草粥)는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을 위한 것이다. 15일 전후에 행해지는 돈도야키는 불로 부정을 태우는 정화의 의미가 내포되며 불에 구운 떡을 막대기에 꽂은 채 그대로 현관에 두면 병에 걸리지 않고 액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도조신을 불에 던져 인간의 액을 대신 가져가도록 하거나 아이들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악마를 퇴치하고자 하는 도조신 마즈리나 소정월 방문도 액막이를 위한 것이며 소정월에 문 앞에 '뉴기(ニューギ)'와 '오니기(オニギ)'라고 불리는 이와이보(祝い棒)를 세워두는 것도 액막이를 위한 목적이 있다. 액막이의 목적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세츠분(節分)이다. 콩을 뿌리고 귀신을 쫓기 위해 문에 호랑가시나무를 꽂거나 오니오도시(鬼威し)³⁸를 걸어놓거나 악취를 나게 물고기의 머리나 털을 태우는 야이카가시(ヤイカガシ)는 악귀나 해수(害獸), 해충(害蟲)을 쫓기 위한 것이다. 츠이나(追儺) 행위 역시 축귀의 의미이다.

다. 한국 - 정월 세시의례에서 보이는 종교성은 먼저 조상숭배에서 볼 수 있다. 조상님께 차례와 성묘를 통해 새해 인사를 하는 것이 설을 맞이하여 무엇보다 우선하는 의례이며 한국인의 정월 세시에는 조상숭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생업과 관련한 예측과 풍요를 위한 기원을 보면, 지신밟기를 통해 가가호호 액을 물리고 풍요와 복을 빌며 대보름에는 풍요를 위한 예측과 농사일의 모방행위가 많은데 생업의 번성을 위한 종교적 표현이다. 또한 이러한 행위에는 충해, 잡초,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속신과 금기도 담겨있다.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의 측면에서도 정월에 담겨있는 종교성을 알 수 있다. 대보름 의례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비는 행위, 재수와 복을 기원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난다. 정초의 흥수떡이, 삼재막기, 엄나무 걸기, 야광귀 쫓기 등에는 액막이와 잡귀를 쫓고자 하는 종교적 염원이 담겨있다.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에서는 춘절의 시작인 납월의 납팔일(臘八日)과 조왕제에서부터 복을 기원하고 있으며 춘련과 문신을 통해 악한 귀신을 쫓고 액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고 새해가 되면 산에서 내려오기를 좋아하는 '산소'라는 괴물을 퇴치하고자 새벽에 대나무를 태워 소리와 불빛을 낸다. 불을 환히 밝히고 병과 역귀를 쫓아내어 신년이 길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잠을 자지 않고 수세(守歲)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며 축귀와 액막이는 중국 정월 세시의례에서 비중이 크다. 복과 재운,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측면도 중요한데 초하루로 넘어가면서 재신을 맞이하고 재운이 나가지 않도록 마당을 쓸지 않는 점이나 건강과 장수를 위한 도소주 마시기 등에서 드러난다. 일본은 새해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도시가미사마를 잘 영접하고 풍요를 기원하고 예측을 하며 건강과 복을 빌며 축귀를 하고 액을 막아 1년간을 잘 보내고자 하는 종교적 염원을 테마로 한다. 정월 세시의례에서 보이는 음식이나 놀이 등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기제가 된다. 한국은 조상님께 새해인사(세배)를 드리고 한해의 액과 충해 등을 막고 복을 빌며, 농사일의 풍요를 위한 예측과 모의행위, 사람과 가축의 건강을 기원하고자 하는 즉, 인간 삶을 위해 기본적, 현실적으로 바라게 되는 효와 생업의 풍요, 건강과 복, 액막이를 위한 민초들의 종교적 염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신과 조상에게 새해 인사를 올리고 건강과 복, 풍요를 기원하며 악한 귀신과 액을 막고자 하는 것은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세구복적³⁹ 성격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한·중·일의 차이를 본다면, 중국의 경우에는 조왕, 옥황상제, 문신, 축귀, 복과 장수, 재물 기원 등 도교와 중국의 민간 신앙적 요소가 종교적 배경으로 깊이 뿌리내려 있음을

38 장대 끝에 대바구리를 달고 거기에 호랑가시나무나 뽕나무 잎을 달아서 세워놓은 것.

39 세시의례에서 풍요와 재복, 건강, 장수 등을 기원하는 현세구복적 성격이 두드러지지만 그렇다고 세시의례를 현세구복적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세시의례에 내포된 유교, 무속, 도교, 신도 등에서 보여 지는 효(孝), 예(禮), 조화(調和),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같은 종교적 보편성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시가미를 비롯한 집안의 가신, 조상 등은 물론 신사와 사찰, 주변 산의 산신께 새해 인사를 하고 예축과 풍요, 액막이, 축귀, 건강과 복 기원 등이 정월 세시의례에 내포되어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새해의 복을 주는 정월신(도시가미)의 방문과 그것을 모방한 아이들의 방문 등을 볼 때 도시가미의 비중이 크며 그러한 성격은 중국 및 한국과 다른 일본적 특징이다. 일본의 정월 세시의례에서는 신도 및 일본의 민간신앙적 요소가 두드러지며 일부 신사에서 행해지는 츠이나(追儺) 의례나 도소주 등에서는 도교적 성격도 보인다. 한국에서는 설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새해에 조상에 대한 의례가 있지만 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차례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유교적 종교기반이 내재한다. 물론 한국에서도 가신(家神)을 위해 정월고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지만 이것은 대보름 경에 많이 행해졌다. 정월 세시의례에는 유교와 함께 무속, 민간신앙적 요소가 토대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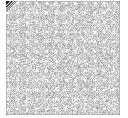
IV.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의 관련성

한·중·일 정월 세시의례에는 3국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2국에서 혹은 1국에서만 보이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 1국의 특징으로 볼 수 있지만 2국 이상에서 보이는 의례는 전파론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 그러나 무조건 전파론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각 나라의 환경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래 있던 것에 타국의 영향이 미쳐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파론, 자생론, 영향론 등 여러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개별 세시의례의 연원과 변화과정을 생활사적으로 고대(古代)부터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일이라 별도의 연구가 필요

하다. 이 점은 추후 연구과제로 두고 본고에서는 기존에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약속하도록 한다.

오늘날 행해지는 중국 세시의례의 기본구조는 6세기에 지어진 『형초세시기』에 등장하고 있다. 왕국의 교체, 체제의 변화, 격정적인 세파(世波) 속에서도 기층(基層)을 통해 전승력을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시의례가 가진 힘을 새삼 느낀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다고 하여 세시의례에서 종교신앙적 측면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 신과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종교성이 풍부했던 정월초하루는 봄을 경축하는 춘절의 성격이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중국의 정월 세시의례의 연원을 보면 오랜 전승력과 역사성을 가늠할 수 있다.

『삼국유사』를 통해 신라 소지왕과 관련하여 대보름에 찰밥을 먹은 유래를 알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보름의 세시의례의 상당부분은 이미 삼국시대부터 내려왔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자생적인 것과 달리 타국으로부터 전래된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차례와 같은 유교제례나 궁중 혹은, 대가(大家)에서 대문에 붙여놓았던 세화, 문배 등은 중국에서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도 정월에 떡을 먹는 관습은 새해 첫날 딱딱한 엿을 먹는 중국 관습에서 영향을 받아 궁중에서 하가타메(齒固め)의 양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초하루 가족이 모여 새해 인사를 하고 잔을 돌려 마시는 ‘오토소’는 중국의 도소주가 헤이안 시대에 전래되어 궁중에서 새해 첫날 의식으로 도입된 것이다. 중국에서 1월 7일 관리의 승진을 정하는 날 아침에 약초인 봄철 햇나물을 먹어 입신을 바라는 것이 일본에 전해져 헤이안 시대 궁중의식으로 일곱 가지 나물죽을 먹었으며 에도시대에는 고셋쿠(五節供)⁴⁰의 하나인 나나쿠사노셋쿠(七草の節供)로 정해졌으며, 고대 중국에서 설달그믐에 악귀와 돌림병을 쫓기 위해 복숭아나무로 만



든 활로 도깨비 탈을 쓴 사람을 쏘는 츠이나(追儺)행사가 헤이안 시대 궁중에 전래되었다.⁴¹

전파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 전파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비슷한 맥락의 세시의례도 보인다. 일본의 대보름 축제인 ‘돈도야키’는 헤이안 시대 사기초(三稊杖)에서 파생되었는데 과거 촌락에서 행해진 돈도야키는 한국의 ‘달집태우기’와 유사성이 있으며 한국의 대보름에 하는 ‘용알뜨기’는 일본의 정월 초하루 새벽에 하는 ‘와카미즈(若水)’와 유사하다. 선달그름이나 연말에 대청소를 하는 풍습, 설날 새옷을 입거나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나 돈을 주는 풍습 등은 한·중·일 어디에서든 보인다. 이러한 점은 전파되었다기보다 인간 생활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그동안 한·중·일 세시의례의 종교적 배경으로 유교, 불교, 도교, 무속, 신도 등이 있음은 여러 자료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필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월 세시의례를 중심으로 하여 각 의례의 시기, 유형, 목적과 내용을 정리한 후 도표로 제시하고 시간적 다층구조의 변곡점을 찾아보고 3국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신, 예축과 풍요의 기원, 액막이와 축귀, 건강과 복 기원 등의 측면에서 종교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 근거를 실증적으로 찾아보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정월 세시의례의 핵심은 송구영신(送舊迎新)이다. 일본에서는 12월 중순이 되면 도시가미를 맞이하기 위한 가도마츠(門松)와 시메나와가자리(しめなわ飾り), 정초에 먹을 오세치요리를 준비한다. 새해가 열

리면 신사에 가서 하쓰모데(初詣)를 한다. 정월 보름에는 돈도야키를 하여 정월에 사용한 장식물과 지난해에 사용한 부적이나 액막이 물건을 전부 태워 보낸다. 한국에서도 설이 다가오면 차례준비를 하고 선달그름에는 집안을 깨끗이 하고 가까이 사는 어른들에게는 감사의 뜻으로 묵은세배를 드린다. 새해 첫날 차례를 지내며 정초에서 보름까지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 많은 세시의례가 있다. 중국에서는 제야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는 단원반(團圓飯)이 중요하다. 환하게 불을 밝히며 밤을 새며(守歲), 문밖에서는 폭죽소리가 요란하다. 문에는 춘련을 붙이며 새해에는 번창하기를 기원한다. 중국에서는 정월 초하루에 폭죽을 터뜨리며 요란하게 보내지만 한국과 일본은 대보름에 달집태우기와 돈도야키를 시끌벅적하게 한다. 같은 불축제로서 액을 물린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의 달집태우기는 달을 맞이하여 소원을 비는 것이 핵심이라면 일본에서는 정월에 장식했던 가도마츠, 시메나와가자리 등을 태우고 도시가미를 보내는 것이 중심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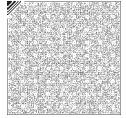
세시의례의 절반을 정월이 차지할 정도로 정월의 비중이 높다. 또한 정월 세시의례에는 민간신앙적 세계관이 잘 내포되어 있어 한·중·일 세시의례에 내포된 종교적 성격과 구조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사계절의 순환에 따른 생업력과 제의력에 기초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세시의례는 민속신앙의 종교관과 시간관, 공간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생태환경에 따른 인간의 적응양식을 담고 있다. 일본의 연중행사에는 다분히 신도적 세계관, 한국이나 중국의 절일풍속(節日風俗)에도 종교적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다. 한·중·일 3국의 세시의례에는 샤머니즘과 농경신앙, 조상숭배, 신도, 도교, 유교, 불교 등 다양한 종교적 배경이 보이며 유무(有無)나 정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새해가 되면 신사와 사찰을 참배하며

41 이이쿠라 하루타케, 앞의 책, pp.43~64.

신도, 불교, 민간신앙, 조상숭배, 액을 물리기 위한 예방 등 다양한 종교적 요소를 볼 수 있다. 중국에서도 조왕신, 조상, 액을 막기 위한 문신(門神), 병을 막기 위한 온신(瘟神) 등과 관련된 의례를, 한국에서도 차례를 지내고 성모를 하며 정초에 지신밟기를 하여 지신(地神)을 달래고, 줄다리기를 통해 풍요를 기원하며 동제를 지내고 대보름에는 오곡밥을 먹고, 부럼 깨물기, 달집태우기 등을 하며 액을 물리고 농사와 관련된 예축의례를 볼 수 있다.

농경과 촌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세시의례는 근대적 시공간 그리고 도시사회로 변모한 현대적 시공간에 놓이게 됨으로써 많은 부분이 변모하거나 심지어 멸실되는 것도 생겨났다. 또한 현재까지 행해지고 있는 세시의례도 미래에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 수 없다. 본고에서는 세시의례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한·중·일 세시의례의 통시적 고찰과 대조는 과제로 남는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시의례는 변모, 단절의 파고와 맞서게 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된 것, 기능이 있는 것은 유지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실된다. 비록 당대의 환경으로 인해 단절되고 소실된 것이라고 해도 문화자원으로서 세시의례는 활용성이 높다. 일상으로부터 떠난다 해도 미래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세시의례에 대한 기억 수집은 여전히 학술적,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중요하다. 한·중·일 3국에서 세시의례를 문화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지도 검토해 볼만하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22S1A5B5A17047490).



참고문헌

- 국립민속박물관, 2002, 『한국 고·중세 세시풍속 자료 집대성』.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삼국·고려시대편)』.
- 국립민속박물관, 2003,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편)』.
- 국립민속박물관, 2004,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조선전기문집편)』.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세시풍속 I』.
- 국립민속박물관, 1997, 『한국의 세시풍속 II』.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기도 세시풍속』.
- 김덕목, 2011,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한국민속기록보존소.
- 김덕목, 2021, 「일본의 가정에서 모시는 신 연구 - 시즈오카현 우쓰노야 마을을 중심으로」, 『문화재』 55(4), 국립문화재연구원.
- 김매순, 1819, 『洙陽歲時記』.
- 김성원, 1994, 『韓國의 歲時風俗』, 명문당.
- 김택규, 1991,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영남대출판부.
- 노성환, 2019, 『조선통신사가 본 일본의 세시민속』, 민속원.
- 유득공, 1779, 『京都雜誌』.
- 임동권, 1993, 『韓國歲時風俗研究』, 집문당.
- 정승모 역, 2009, 『동국세시기』, 풀빛.
- 최남선, 이영화 역, 2013, 『조선상식문답』, 경인문화사.
- 최상수, 1999, 『歲時風俗』, 서문당.
- 최인학 외, 1998, 『기층문화를 통해 본 한국인의 상상체계(하)』, 민속원.
- 홍석모, 1849, 『東國歲時記』.
- 大林木良, 1992, 『正月の來た道』, 小學館.
- 藤原修, 1994, 「トシガミの性格について」, 『民俗の歴史的世界』, 岩田書院.
- 富山 昭, 1992, 『静岡縣 民俗歲時記』, 静岡新聞社.
- 三橋 健, 2021, 『神道の本』, 西東社.
- 小川直之, 1992, 「年中行事研究の方向」, 『日本民俗學』190, 日本民俗學會.
- 新谷尙紀, 2007, 『日本人なら知っておきたい暮らしの歲時記』, 宝島社.
- 柳田國男, 1946, 『祭日考』, 小川書店.
- 井阪康二, 1998, 「日本民俗學の研究動向II, 時間の民俗」, 『日本民俗學』214, 日本民俗學會.
- 竹田 旦, 2008.10, 「日韓比較民俗學の試み-清明と寒食をめぐって」, 『專修大學社會科學研究, 所月報』 544.
- 高占祥, 1993, 『中國民族節日大全』, 知識出版社.
- 蒯大申·祁紅, 박현규 역, 1999, 『중국민속학』, 백산자료원.
- 喬繼堂, 1991, 『中國歲時風俗』, 天津人民出版社.
- 丘桓興, 남종진 역, 2002, 『중국풍속기행』, 프리미엄북스.
- 국립민속박물관, 2006, 『중국대세시기』.
- 陶立璠, 김종직 역, 1997, 『중국민속학의 이해』, 집문당.
- 田建華·向良喜, 2012, 『中華民俗全知道』, 中國紡織出版社.

Religiou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New Year's Rites During January in Korea, China, and Japan

KIM Dukmuk Director, The Korea Folklore Archives

minsokmu@hanmail.net

Abstract

New years' rites serve a religious function to wish for well-being during the year by bidding farewell to the previous year and welcoming the next. In Japan, in mid-December, to welcome *Toshigami*, *kadomatsu*, and *shimenawagazari* are prepared, as well as *osechi ryori* to be eaten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n New Year's Day, people go to shrines and bow to the gods while saying *Hatsumode* (初詣). On the fifteenth day of the first month, in the course of a rite called *Dondoyaki*, all the decorations used in the first month and the amulet used in the previous year are burned.

In Korea, when the Lunar New Year approaches, people prepare for their ancestral rites and clean their houses. On the first day of the new year, people hold ancestral rites for their ancestors. There are many different seasonal rites, taking place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the full moon. In China, *Danwonban* (團圓飯), in which the whole family sits together and eats on New Year's Eve, is important. Lights are brightly lit up all night, and the sound of firecrackers outside rings out loudly. On the door, the word *chun-ryun* is attached to wish for prosperity in the new year. According to the cycle of the four seasons, the first lunar month contains a high proportion of the seasonal rites that are repeated every year. The first month represents the beginning of a year, and various rituals are performed in order to wish for good health and abundance during the coming year. In addition, the "folk religious world view" is integral to annual new years' rites, so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religious character and structure of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nnual ceremonie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annual new years' rites in Korea, China, and Japan, and how the rites are structured according to the inflection points in the year. In addition, religious characteristics are reviewed in terms of gods, predictions, and fertility prayers, exorcisms, health, and restoration. In this way, it can be seen that various religious elements such as shamanism, agricultural faith, ancestor worship, Shintoism, Taoism, Confucianism, and Buddhism can be witnessed in the annual new years' rites of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difference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se are shown to depend on the country.

Keywords January, Seasonal rites, East Asia, Korea, China and Japan, Religious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Generality and Specificity

Received 2023. 7. 7. | Revised 2023. 10. 19. | Accepted 2023. 10. 24.

